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원동 344-2) 한광대학교병원 5층 1호실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9년 3월 19일 화요일 (음 2월 13일) 제2250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063)288-9700

전주, 금융중심도시 도약 '날개'

시-전북대-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이용센터 운영 협약 체결... 금융산업 전문인력 양성 완성도 향상

전주시와 전북대학교가 호남·영남 지방 최초로 통계청의 마이크로데이터 이용센터를 유치하는데 성공했다.

통계청과 전북대학교는 18일 강신욱 통계청장과 김동원 전북대 총장, 김형조 전주시 신성장산업본부장, 최요철 한국은행 전북본부장, 원종현 국민연구원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시가 지원하는 금융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일환으로 설립된 전북대학교 내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이용센터의 개소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통계청과 전북대학교는 18일 전주시가 지원하는 금융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일환으로 설립된 전북대학교 내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이용센터 설치와 운영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에 구축된 마이크로데이터 이용센터(RDC: Research Data Center)에서는 통계청의 통계조사 원자료에서 조사·입력오류 등을 수정한 개발단위(개인, 가구, 사업체 등) 자료를 이용할 수 있어 금융 분야의 심층 연구와 분석을 위한 자료를 얻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전주시와 전북대, 지역금융 관련 기관이 함께 추진해온 금융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완성도도 높아지게 됐다.

전북대와 통계청은 이날 개소식에 앞서 마이크로데이터 이용센터(RDC)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협약 후에는 센터가 운영될 전북대 상과대학 2호관에서 개소식을 진행했다. 또, 마이크로데이터에 대한 소개와 데이터 활용사례 등에 관한 세미나도 진행됐다.

앞서, 시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전북혁신도시 이전에 따른 금융전문인력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17년 4월 전북대와 업무협약을 체결, 전북대 금융·정보경제학 교육과정 이수생들을 대상으로 '금융

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김형조 전주시 신성장산업본부장은 "금융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금융관련 통계 및 계량 분석을 전문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데이터의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며, "전주시의

꾸준한 지원과 전북대의 노력으로 오늘 센터를 개소하게 된 만큼 앞으로 마이크로데이터가 파생상품 및 금융시장의 계량적 분석이나 금융 및 연금 상품 개발 등 각종 연구를 위한 자료로 요긴히 쓰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송호철 기자

사회

참신한 인재를 찾습니다

전북 언론의 미래를 열고자 하는 전주매일신문사가 열정과 패기가 넘치는 참신한 인재를 모집합니다.

구분	모집분야	자격조건
지역주재기자	익산 0명	취재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자 남·여·나이제한 없음

- ▲ 접수기간: 2019년 3월 31일까지
- ▲ 제출서류: 이력서 1통, 자기소개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 ▲ 전형방법: 1차 서류전형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 접수처: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4층(서노송동) 문의 063-288-9700(본사 총무팀)

전주매일

“전북도교육청, 성폭력 가해·피해자 즉각 분리”

장수교육지원청 성폭력공무원 규탄 대책위 규탄
지난 2011년 12월 지원청 행정공무원 성폭력 자행

장수교육지원청 성폭력공무원 규탄 대책위원회는 18일 전북교육청 2층 브리핑룸에서 “전북교육청은 성폭력가해자와 피해자 즉각 분리하고 철저히 재조사하라”며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사건은 지난 2011년 12월 장수교육지원청 주관 연수장에서 발생했다. 장수교육지원청 행정공무원은 관내 근무하던 교사를 대상으로 성폭력을 자행했다.

사건 이후 도교육청은 '경고'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김승환 교육감이 2012년 12월 당시 성폭력 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 방침을 발표하며 재조사를 통해 징계수위가 '감등'으로 높아졌다. 하지만 소청심사를 통해 '정직 3개월' 처분으로 감경됐다.

성폭력공무원 규탄 대책위원회는 “정직 3개월”은 소청심사 중 징계 감경을 위해 피해자의 탄원서를 제출

했는데, 피해자는 탄원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즉, 가해자는 피해자의 인장을 도용한 의심이 들고, 이를 위조해 소청심사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한 대책위원회는 “가해자의 징계수위를 당사자에게 알려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감경되는 과정에서 가해자의 사문서 변조 및 도교육청의 조직적 개입이 의심된다”며 전북교육청은 성폭력 가해자와 피해자 즉각 분리하고 철저히 재조사하라”고 규탄했다.

최근 장수로 복직한 피해자는 가해자가 장수교육지원청에 승진해 근무하고 있음을 알게 됐고, 직접 마주치는 일까지 발생했다.

한편, 가해자는 '정직 3개월' 징계로 잠시 장수지역을 떠나 진안, 군산을 거쳐 지난 2015년 7월 3년만에 승진해 다시 장수로 복귀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 신임 부총장 3명 임명

교학 김선희·대의협력 이귀재·연구 신형식 교수

전북대학교 김동원 총장이 새로운 본부 조직을 이끌어 갈 부총장 3명을 임명했다.

김 총장은 18일 김선희 교학부총장을 비롯해 이귀재 대외협력부총장, 그리고 직제 개편에 따라 신설된 연구부총장에 신형식 교수를 각각 임명했다.

그간 공석으로 남아 있던 국제협력 본부장에 이동현 교수가 임명됐고, 오창환 교수도 이날 신문방송사 주간

교수 임명장을 받았다.

신임 교학부총장으로 교무와 학생, 입학 등의 업무를 총괄할 김선희 교수는 1986년부터 전북대 교수로 재직해 오며, 의과학연구소장, 보건대학원장, 의학전문대학원 부원장, 산학협력단 21세기 의과학인력양성사업단장, 대학본부 기획처장 등을 역임했다.

또한 대외협력부총장으로 정·재계 두터운 대외 인맥과 학내 중책을 두



루 겸은 이귀재 교수는 1999년부터 전북대 교수로 재직하며 학생부총장과 초대 취업지원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한편 신설된 연구부총장을 맡은 신

형식 교수는 1988년부터 전북대 교수로 재직하며 반도체 포장재료 개발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 연구 등에 탁월한 연구 성과를 보였으며, 신재생에너지 누리사업단장, 한국연구재단 기초연구본부 단장 등을 역임했다. 2014년에는 공학 및 기술발전회원으로 있는 한국공학한림원 일 반회원에 선정되기도 했다. /장은성 기자

JJC 지방자치 TV

지역 문화 콘텐츠

JJC전북



지방자치가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합니다!

TV방송채널

kt 올레TV ch.279

Btv ch.285

tv ch.253

JJC본사: <http://www.jjctv.co.kr> Tel 02-2057-0011 Fax 02-2057-0021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09 롯데캐슬프레지던트 23F

JJC전북총국: <http://jjctv063.co.kr> Tel 063-246-0885 Fax 063-286-0887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승주빌딩 5층